##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12월 5일)
- **청년부 1일 수련회:**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 **라합1나라 모임:** 11월 12일(목) 10시 30분 호텔KO
- **2027년 매일성경 구독 신청:** 다음 주일(11월 15일)까지, 김성희 님께
- **각 자치회는 총회를 통해 2027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일:** 박승은, 이하임, 김지훈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2부 예배 후,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

**◆말씀일기 일정**

| | | | |
|---|---|---|---|
| 일/고후6:1-7:1 | 월/고후7:2-16 | 화/고후8:1-15 | 수/고후8:16-24 |
| 목/고후9:1-15 | 금/고후10:1-18 | 토/고후11:1-15 | 일/고후11:16-33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92독**

**◈ 예배위원 안내 ◈**

| | 11월 8일 | 11월 15일 | 11월 22일 | 11월 29일 |
|---|---|---|---|---|
| 예배기도 | 김진 | 김혜경 | 김학순 | 박성희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봉헌위원 | 장혜진 강일구 | | | |
| 애찬위원 | 밥상 넷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43-45호** **2026년 11월 8일**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Dusseldorf e.V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 년 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매월 첫째 토요일은 가족기도회)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 년 5 월 8 일 창립

#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 함 께 |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인 도 자 |
| ※찬송/Gemeindelied | 5장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 함 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84번 | 다 함 께 |
| 찬송/Gemeindelied | 484장 | 다 함 께 |
| 기도/Gebet | | 김진 집사 |
| 찬양/Chor | 주는 반석 |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고린도후서 6:1-7:1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90장 | 다 함 께 |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 함 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 함 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고후 5:11-21 'Versöhnung' ◀

'화목'이라는 독일어 단어 Versöhnung을 잘 들여다 보면, 복음이 보인다. Versöhnung은 ver라는 비분리전철, 아들이라는 뜻의 Sohn(복수 Söhne), 그리고 여성명사형 접미사 ~ung가 합쳐진 단어이다. Ver는 어근의 뜻을 더욱 강조하거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 화목 혹은 '화해'란 '인간들이 아들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뜻한다. 아들 예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와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오래 전 영문 이름을 정할 때에, 발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들'(son)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h를 넣어서 내 성을 Sohn으로 표기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독일로 와서 보니 이게 '아들' 아닌가!^^ 나는 '아들'의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 분께서는 나를 결국에 '아들'되게 하셨던 것이다. 사소한 듯한 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난 지금도 독일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곤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만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찬송가 508장).

하나님과의 화목, 세상(사람, 자연)과의 화목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18:3-4). 아멘!

### ▶지난 주 봉헌 내역(11월 1일-11월 7일)◀

| 십일조 | 월정헌금 | 목적헌금 |
|---|---|---|
| 김수경, 신형만, 서민규, 한정우, 민명희, 한상철, 서정인, 민지음 | 코르넬리우스 브륀 | 서민규(선교관) |
| **총액 2.229,01유로** = 예배당 869,01 + 온라인 1.360,00 | | |